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이사야 25:6-10	제2독서	필리피서 4:12-14, 19-20	복음	마태오 22:1-14
--------	------	-------------	------	---------------------	----	-------------

◎말씀 < 위기와 기회 >

함께 모이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요즘 본당 신자들의 미사 참여율이 50%~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미사의 잔치에 조심! 또 조심스레 다녀야 하는 것을 저 역시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면역력이 약한 자녀들과 어르신들이 집에 계신다면 더욱 나오기 힘들것이라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파스카 잔치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습관이란 참으로 무섭습니다. 편안함과 즐거움의 쾌락을 한 두 번 느끼다 보면, 떨쳐 버리기가 어려운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당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던 한 자매님은 코로나로 인해 미사가 잠정 중단되자 “성당에 안가니 쉬기도 하고 편하고 좋다” 하시던 말씀을 들은 적 있습니다. 전 그 말씀을 들으며 우스갯 소리로 그냥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인의 외적 모습과 봉사활동에 치우친 결과는 아닌지? 또, 이참에 쉬는 교우분들이 더러 계시는건 아닌지 염려스럽기 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 자매님만 그럴까요?

많은 신자분들이 위기의 코로나시대를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는 반대로 미사가

다시 재개되고, 부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 아쉬움이 가득한 신자분들과, 몇달 만에 주님의 몸을 영한 한 자매님의 감동 일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사에 참례할 수는 없지만 가족들과 복음을 매주 나누며 더 화목해졌다는 가족도 만났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며 저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예복을 잘 차려입고 내적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시는 구나’ 라고요. 바로 이런 분들은 기회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는 참 신앙인으로 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신앙적으로 편안함과 안주함을 추구하는 사람과,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 내적 외적으로 성장한 모습의 간격이 확연히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는 합당한 핑계거리를 이유 삼아 놓고 쉬며 편안함에 참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갈 수는 없더라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위기” 에 안주하지 말고 “기회” 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0월 13일(화)	연중 제28주간 화요일		교무금 주일헌금	\$ 4,170.00 \$ 711.00
10월 14일(수)	연중 제28주간 수요일		미사예물 성소후원	\$ 220.00 \$ 125.00
10월 15일(목)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사회복지 성물방	\$ 75.00 \$ 0.00
10월 16일(금)	연중 제28주간 금요일		기타수입	\$ 0.00
10월 17일(토)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합 계	\$ 5,301.00
10월 18일(일)	연중 제29주일	오전 10시	미사참례자	학생: 0명 성인: 55명
교무금 봉헌자	황성연, 김재선(9-12월) 김현지(6-12월) 박병수, 이의웅(9-10월) 국부자(5-8월) 전우성, 지영욱(9월) 김은영, 박원상, 김주동, 김계숙, 김상돈, 남필레, 전기례, 지복원, 박용호(10월)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미사 때 고백기도를 바치면서 가슴을 ‘세 번’ 치는 의미는?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 3)

시편 51편은 구약의 위대한 성왕(聖王)이라 불리는 다윗이 큰 죄를 짓고 고백하는 참회의 내용을 시로 담고 있습니다. 미사의 시작 예식에서도 사제와 신자들은 공동으로 죄를 참회하는 고백기도를 바칩니다.

사제가 먼저 “전능하신 하느님과” 라고 운을 띄우면 교우들이 뒤따라서 같이 합송하는 형식입니다. 이때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슴을 세 번 칩니다. 가슴을 ‘세 번’ 치는 뜻은 우리가 세 가지로 즉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 자녀로서 의무를 저버린 것을 후회하고 아파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죄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부당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죄스러움을 진정으로 시인하는 것은 용서와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가슴을 치는 행위는 “주님, 가련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그리스도인의 겸허한 기도의 기본 자세를 나타냅니다. 소죄(小罪)의 경우 이 참회예식을 통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독서와 복음을 들으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고 다짐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대죄(大罪 : 십계명을 어긴 죄)의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백 기도는 내용상 두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즉 하느님과 모든 성인과 천사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부분과 성인들과 천사들에게 전구를 청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고해성사를 받기에 앞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며 고백기도를 바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3’ 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교리에서 보듯이 완전함, 총만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사 때 고백기도를 드리면서 가슴을 세 번 치는 뜻은 완전한 뉘우침, 완전한 통회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때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면 소소한 잘못들은 주님의 크신 자비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됩니다.” (사도 13,38)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욱.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배미성.오티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뎃다
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곽화근.요한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생	요셉회,안나회 어르신들 영육건강	이순자.요안나	생	곽화근.요한 건강회복	곽유경.데레사
			생	이영숙.데레사 영육건강	정의의모후Pr.
생	장영란.젼마 영육건강	임정남.실비아			

간
장
종
지

◎바다에서◎

여름이 지나간 바다의 저 파도소리
갈매기는 아직도 화려한 곡선만 그리는데
안일한 일상의 부끄러운 내 고백 잠 재우시고
오늘은 물살되어 사랑의 손으로 나 씻어 주세네.

마종기 노렌조.시인,의사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p> <p>게스관광</p> <p>(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www.guesstour.com</p>	<p>Suzie Hair World</p> <p>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p>
<p>성당에 제출할 CHECK 발행하실 때</p> <p>Payee to: St.J.H.C</p>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1.실내미사 재개안내(10월4일)
주일미사;일요일 오전10시
평일미사;당분간 없습니다.
모임 및 회합.행사 중지는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미사참가 가능인원:정원의25%(약60명)
미사참례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 2.본당소독봉사(매주일 10시미사전후)
미사 참례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미사전후 자발적인 소독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 3.교무금과 주일헌금 봉헌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교회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신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미사중에 봉헌하시거나 사무실에 봉헌해주시고, 미사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CA95826
Check 발행시: **ST. J.H.C.**
- 4.달력 및 후보광고 신청(2021년도)
신청기한:(달력)10월10일까지/(후보)연말까지
광고비 :(달력)\$150 / (후보)\$150
- 5.신자 주소록
현재 게시판에 최종버전(10.10자)게시중입니다
최종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쇄를 원하지 않는 정보(예,주소)는 구역장 또는 사무실에 삭제요청 바랍니다.

- 6.St. Mary's묘소 한국섹션 근무자 모집
주요업무:한국세션 홍보 및판촉(한국.영어가능 사무실제공하며 주2회 2시간이상근무 문의:고원석 연령회장(916-813-4440)
- 7.St.Mary's 묘소 오픈하우스 안내
기간:10.3(토)~4(일), 오전10시부터 오후3시
- 8.마스크 필요하신분은 연락해주세요(사무실)
(어린이용 KN95 마스크)

◆ 미사 참례시 안내사항

-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합니다.
(미사 장소와 친교실, 화장실 등)
-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미사 참례자는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 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반주로 대신합니다.
-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하고,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합니다.
- 미사 중(평화의 인사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화답송	 <p>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p>				
	전례봉사	연중제28주일(10월11일)	연중제29주일(10월18일)	연중제30주일(10월25일)	모든성인대축일(11월1일)
복사	김규철.레오	최진호.다니엘	김규철.레오	송돈희.요셉	
헌금위원	레지오 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